

성인업소 출입, 술·담배 구입 10대 '신분증 위조' 기승

광주북부경찰, 가짜 대학생증 판매업자 적발

최근 광주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인 신분증 위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에 손쉬운 위조 방법이 게재돼 있고 신분증을 위조해주는 업체까지 등장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생들이 성인업소 출입을 위해 대학 학생증을 위조한 사실도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모 고등학교 2년 K(16)군은 최근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출입을 저지당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출입이 금지된 업소였기 때문이다. K군은 친구들과로부터 "광주 J대학교 인근에 가면 가짜 대학교 학생증을 발급해 주는 A인쇄소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았다.

K군은 A인쇄소에서 1만원을 주고 광주 K대학교 가짜 학생증을 만들었다. 학교로고와 사진, 학과와 학번, 이

름·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가짜 학생증은 실제 K대의 학생증과 거의 흡사했다. K군은 가짜 학생증을 지갑에 넣고 다니던 중 부모님에게 들키 뺏아졌다.

K군은 위조된 신분증으로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는 하진 않았다. 하지만 가짜 학생증을 만들어 K군 등 청소년 5명에게 판매한 A인쇄소 업주 J모(57·광주시 남구 방림동)씨는 사문사위조 혐의의 광주북부경찰에 입건됐다.

인터넷상에서도 신분증 위조나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최모(18·광주 J공고 1년 중퇴)군은 지난해 광산구 비아동 한 PC방에서 모 포털사이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카페에 접속, 위조된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실제 지난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판매하는 카페가 성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카페는 '신분증을 만들어 드립니다' '3D홀로그램의 이중 특수막으로 인해 적발될 염려가 없습니다' 등의 광고 문구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위조 증명서 발급 대금은 건 당 ▲타인 명의의 통장 개설 10만원 선 ▲주민등록증 80만원 선 ▲운전면허증 140만원 선 등이다. 위조 신분증을 사려는 이유는 담배와 술을 사고 성인 인증이 필요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다.

광주북부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경우 장난이나 호기심 충족을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이를 구입하는데, 성인의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다"며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정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주어질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U대회 깃발 들고 실사단 맞읍시다"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실사단 방문을 앞두고 U대회 홍보와 유치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광주택시공제조합 회원들이 22일 광주비엔날레 주차장에서 택시운전자들에게 U대회 깃발을 나눠주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금품 살포' 민화식 前 해남군수 구속

18대 국회의원 선거 통합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금품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민화식 전 해남군수와 선거운동원 김모(67)씨가 구속 수감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2일 오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경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남경찰에 따르면 민 전 군수는 해남·진도·완도지역구 통합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지난 2월13일과 25일 진도군 선거사무실에서 "조직 구성과 선거운동에 써달라"며 사무장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 A씨는 이 돈으로 각 읍·면책들에게 1인당 100만~3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준순경 민 전 군수의 진도연락소장이 읍·면책 등 6명에

보 500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살포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금품제공 내역이 적힌 결정적 증거물인 메모장과 녹취록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수사를 펼쳐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은 지금까지 사무장을 비롯해 선거운동원, 면책 4명 등 모두 6명을 구속했으며 잠정적인 선거대책본부장과 운동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다.

민 전 군수는 현역의원 2명을 물리치고 통합민주당 공천을 따내며 당선이 유력시 됐으나, 선거 막판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물론을 앞세운 김영록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에

게 40배를 맞았다. 민 전 군수는 현역의원 2명을 물리치고 통합민주당 공천을 따내며 당선이 유력시 됐으나, 선거 막판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물론을 앞세운 김영록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에

한편 광주지방검찰청은 4·9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광주·전남지역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 의혹들을 수사해 모두 8명을 구속하고 1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소의 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신나간 경찰' 음주단속 적발 여성과 술자리

현지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20대 여성과 술을 마시고 함께 노래방까지 간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여성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문모(44) 경사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문 경사는 지난해 8월 광주시 동구 수기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이모(여·23)씨를 조사한 뒤 "위토주를 사겠다"며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문 경사를 만나 술을 마신 이씨는 5개월 뒤 면허정지 처분과 벌금 70만원이 나오자 지난 3월 광주경찰청 인터넷 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남겼고, 광주청은 곧바로 감찰조사를 벌였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씨가 면허정지와 벌금처분을 받은 직후 핫길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사건 담당 경찰이 피조사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돼 중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북부경찰, 직원 대상 안전띠 단속 눈길

"단속 경찰부터 술선수범 해야죠"

광주의 한 경찰서가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광주북부경찰 교통지도계 직원 등 7명은 지난 21일 오전 7시30분

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북부경찰서 정문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북부서의 이같은 단속은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기초집시 단속을 경찰관부터 술선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난데없는 단속에 경찰관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안전띠를 황급히 매거나 차량을 재빨리 돌리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단속에 항의하는 광경도 간혹 눈에 띄었다.

북부서는 앞으로도 정문 앞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법칙급 남부 스티커를 발부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금품 살포 의혹 조사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 당선자 측이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22일 "최근 총선에서 당선된 A씨 측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선관위에서 지난 18일 수사를 의뢰해 진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기초 조사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의 의뢰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밖의 사항은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A씨 측이 조직관리를 위해 수백만원을 줬다"는 선거캠프 관계자의 고발을 토대로 기초조사를 했으나, 금품수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검찰에 사건을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488) 김장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만행

▶ 사물번호 : 02) 3445-0943
▶ 사무국 : 06) 337-0571

잠복 경찰 처량된 '간 큰 외국인'

○...절도범을 잡기 위해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의 차량 부품을 훔쳐려던 '간 큰' 외국인 도둑들이 현행범으로 검거.

○...영암경찰은 지난 21일 밤 11시 50분께 영암군 삼호읍 모 폐차장 창고에 보관중인 앰프·벌퍼 등 중고 자동차 부품 33점을 승합차에 싣고 달아나려던 S중공업 산업연수생 N모(23)씨 등 목공인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이들은 중고 자동차 부품을 훔친 뒤 인근 도로에서 잠복중이던 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 이상호 경감 등 3명의 경찰관이 타고 있던 코란도 차량의 범퍼를 뜯어내려다 걸렸다.

○...이 경감은 "자동차 부품 도난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점에 따라 직원들과 함께 잠복하고 있었는데 실마 절도범이 잠복 경찰차 차체까지 떼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기막힌 표정.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 조이트레블
대표전화 (062) 234-3222
팩스 (062) 234-3111

기쁜소식 조이트레블 특가!!
전세기 특가 1월 20일 ~ 10월 25일
305,000

일본 여행
기동사역 당일 참가자에 참가비 5000원 (일본에 입국비용 포함)

- 329,000
- 399,000
- 349,000
- 629,000
- 429,000

일본 피타이 + 3일여행 + 2박3일 399,000

상당수 하체력가!!

- 1. 이태리 입국 8일 1,490,000
- 2. 서유럽 5개국 11일 2,690,000

1. 대만 / 야류 / 화면 4일 639,000
2. 대만 / 야류 / 화면 4일 639,000

▶ 피타이 당일여행 전화 : 062-333-0900